

역사의 질곡 함께 해온 나무들의 연대기

《궁궐의 우리 나무》 펴낸 경북대 박상진 교수



1971년 7월, 충남 공주 송산리 고분군에서 발견된 무령왕릉은 한일 역사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던졌다. 그 후 20년이 지난 1991년 10월, 무령왕릉은 또 한번 세인의 관심을 모았다. 무령왕릉의 관이 일본열도 남부지방에만 분포하는 금송으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발표자는 나무 관의 조각을 전자현미경으로 정밀 분석한 결과 나무세포의 형태적인 특성상 금송임을 밝혀내고, 무령왕릉 관재의 원목은 지름 130cm, 길이 3m, 무게가 3.6t에 달하는 3백년 이상 된 나무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학계의 반향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잃어버린 왕국'이라 불렸던 백제는 20세기에 이르러 비로소 동북아시아 무역의 중심지, 활발한 문화교류를 이끈 해상왕국으로 새롭게 평가받게 됐다.

그 당시 고대사 연구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사람이 바로 박상진 교수(61, 경북대 임산공학과)다. 박교수는 '목재조직학'이라는 새로운 틀로 관재의 결 속에 숨은 역사의 신비를 벗겨냈다. 그런 박교수가 최근 역사의 숨결을 나무의 나이테 속에 담아낸 《궁궐의 우리 나무》를 펴내 또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손에 잡히는 나무 이야기 들려줘

이 책은 경북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 덕수궁에 심은 우리 나무 98종의 쓰임새와 생태를 나무에 얽힌 옛이야기와 곁들여 살핀 '나무의 문화사'다. 오랫동안 목질문화재의 재질연구에 매진해온 나무박사 박교

이 책은 궁궐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나무들의 쓰임새와 생태를 나무에 얽힌 옛이야기와 곁들여 살핀 '나무의 문화사'다. 궁궐이라는 우리 역사의 공간 안에서 나무는 역사의 현장을 묵묵히 지켜본 산 증인이었다. 박교수는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경계를 무시로 드나들며 풍성한 이야기와 사진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무와 친해지는 방법을 알려주고, 궁궐을 도심 속에 숨겨진 '자연'으로 만나라고 제안한다.

수는 역사적 사료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친근한 나무들의 연대기를 하나씩 엮어간다. 박교수가 이 책을 기획하게 된 것은 오랫동안 수목학을 지도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딱딱한 수목학을 지도하다보니 좀더 재미있게 나무이야기를 들려줄 순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단순히 학명과 분포지, 개화기, 용도 등을 나열하는 도감식은 안되겠다 싶었죠. 그래서 역사서를 들추게 됐습니다. 나무를 보기 전에 그 나무에 얽힌 문화를 알게 되면 더욱 친근하게 나무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과정에서 특별히 궁궐의 나무들이 간택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궁궐은 우리 역사의 현장이다. 하지만 궁궐엔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굽이치고 휘몰아치는 역사의 질곡을 함께 했던 산 증인들이 있는 곳이다. 그것이 바로 나무들이다. 또한 궁궐에 모인 나무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나무들로 궁궐은 수목원 역할도 겸한다. 어디 그뿐인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찾아가 나무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는 친근한 확인학습의 장이 아닌가. 이 책을 통해 그는 궁궐을 역사의 현장, 문화재뿐만 아니라 도심 속에 숨겨진 '자연'으로 만나라고 충고하는 듯하다.

초보자를 위한 박교수의 따뜻한 배려는 책의 곳곳에서 만나는 또 다른 즐거움이다.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식물학 전문 용어는 일상어로 풀어썼다. '낙목 활엽 교목' (落木闊葉喬木)은 '잎떨어지는 넓은잎 큰키나무'라고 설명한다. 또 나무 이름의 유래나, 지금은 마치 다른 나무처럼 돼버린 남북의 나무 명칭 등도 함께 실었다. 열매의 색깔이나 크기, 모양까지 쥐똥을 그대로 닮은 쥐똥나무는 북한에선 김정알나무라 불린다. 나무의 꽃봉오리가 달려 있는 모양이 마치 밥알, 곧 '밥티기'를 닮은 박테기나무는 차라리 구슬꽃나무가 더 어울릴 듯하다고 제안하기도 한다.

고급의 관련 서적 널리 인용해

손에 잡히듯 쉽게 읽히는 나무의 연대기를 엮기 위해 박교수가 참고한

책은 대략 70여권에 이른다. 《삼국사기》《삼국유사》《조선왕조실록》 등 역사서는 물론이고, 시가집과 농서, 의학서적과 일본의 고서인 《일본서기》까지 살살이 뒤졌다. 거의 들추지 않은 책이 없을 정도다. 거기서 그는 누에고치에서 명주실을 뽑아내듯 우리 민족과 나무에 얽힌 사연들을 뽑아낸다.

두세 아름을 훌쩍 넘기는 커다란 키와 멋스런 모양이 정자나무로 제격인 회화나무는 학자의 기개를 상징한다. 중국에서는 상서로운 나무라 해 매우 귀히 여겼고, 우리나라에서도 학자수라 불리며 양반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흔히 인생살이의 덧없음을 이야기할 때 비유되는 '남가일몽'(南柯一夢)은 바로 회화나무 아래서 있었던 이야기다.

하지만 우리 역사 속의 회화나무는 민족의 뼈아픈 고통이 지워지지 않는 역사의 상흔으로 남아 있다. 충남 서산시 해미면에 있는 6백년 된 회화나무 고목이 그 주인공이다. 때는 조선 말기 병인사옥 당시 병마절도사 영에 있던 이 나무는 뜻하지 않게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군졸들이 신자들이 이 나무에 매달아 고문하며 신앙을 버릴 것을 강요하다 목을 졸라 죽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나무의 다른 이름은 교수목(絞首木)이 됐다.

한편 한방에서 살구씨는 만병통치약으로 통한다. 살구씨를 이용한 치료법이 2백여 가지나 알려져 있는데, 이쯤 되면 약방의 '감초'가 아니라 약방의 '살구'가 돼야 할 지경이다. 느릅나무에는 평강공주와 온달장군의 운명적인 만남이 등장한다. 또 원효대사는 요석공주를 만나기 위해 경주 남천에 걸려 있는 느릅나무다리 아래로 일부러 뛰어내리기도 했다. 이는 각각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다.

이 책은 또 현재 궁궐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들의 모습과 잎, 꽃, 줄기, 나무껍질 사진 등도 충분히 실어 '나무도감'으로서도 손색이 없다. 각 장의 들머리엔 궁궐의 역사를 간략히 실고, 궁궐의 전체 지도를 그려넣어 나무의 위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나무지도'도 실었다. 언제라도 궁금하면 달려가 나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감칠맛나는 박교수의 입담이 더해져 한장 두장 책을 넘기다 보면 어느새 '그때 그 나무' 앞에 불려온 느낌이 들 정도다.

고고학 연구에 자연과학이 뒷받침 돼야

박교수는 본래 나무의 세포를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는 자연과학자다. 그런 그가 목질문화재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데는 강우방 박사와의

특별한 만남이 있었다. 1976년 일본 유학시절 학내에서 같이 공부하던 강우방 박사를 만났는데, 문화재에 대한 강박사의 남다른 사랑과 나무의 역사적 의미에 이끌려 본격적으로 나무의 문화사를 연구할 것을 결심하게 됐다.

"나무는 우리 문화재의 가장 친근한 재료입니다. 각종 생활도구는 물론 목선재, 건축재, 목판재 등 발굴되는 유물은 상당 부분이 목질유물이죠. 따라서 조상의 일이 담긴 목질유물은 아무리 보잘 것 없는 토막나무에 불과하더라도 재질을 정밀조사함으로써 당시의 목재이용 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가간 혹은 지역간의 교역실태 등을 추정할 수 있는 귀중한 고고학적인 가치도 있구요. 앞으로 고고학 연구는 인문학적 토대 위에 자연과학의 합리성이 결합돼야 합니다."

1978년 귀국한 박교수의 목질문화재 연구 1호는 제주의 관덕정 향교에 대한 연구조사였다. 하지만 그를 처음 세상에 알린 건 전남 신안 앞바다 침몰선박의 재질에 대한 연구였다. 그때 그는 선박의 재질이 일본산 금송이라고 밝혀 매스컴과 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 후 옛 절의 건축재 등에 대한 연구를 거듭해 영주의 부석사 무량수전, 전남 강진의 무위사 극락전, 구례의 화엄사 대웅전 등의 나무 기둥이 전부 혹은 일부가 느티나무라고 밝혔다.

박교수가 전문서적이 아닌 일반인을 위한 교양서적을 쓴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글 쓰는 작업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며 그동안의 어려움을 털어놓는다. 이 책에 소개된 사진 가운데 꽃과 열매처럼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진들은 대부분 박교수가 직접 찍었다. 또 인문학 분야에도 관심이 많아 몇 해 전부터 신화와 설화, 민담 관련 자료들을 꾸준히 모아왔다고 한다. 최근 10년 동안은 팔만대장경판의 재질 연구에 매진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 대장경판의 재질이 싸리나무가 아니라 대부분 산벚나무와 돌배나무임을 밝혔는데, 앞으로 정년까지 이 연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대구·박옥순 기자

나무에 대한 잘못된 상식 많아

이 책에서 박교수는 역사서에 나오는 나무 이야기 가운데 잘못 번역됐거나 무시해 지나치기 쉬운 사항들을 자연과학자의 세심한 눈길로 꼼꼼히 짚고 바로잡는다. 다음은 전나무와 소나무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는 부분이다.

"최세진의 《훈몽자회》에 보면 전나무의 한자이름은 전나무 회(檜)이다. 유 희의 《물명고》에는 전나무 회 혹은 삼(杉)으로 나타내었고, 일갈나무도 삼(杉)이라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삼'이라고 하면 일본에서만 자라는 삼나무를 말하기 때문에 혼란이 있다. 우리나라 옛 문헌에 나오는 '삼'을 전나무나 일갈나무로 해석하지 않고, 삼나무로 해석하게 되면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게 되니 유의해야 한다"(본문 105~106쪽).

"소나무는 적송, 육송, 강송, 춘양목이라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 '나무 줄기가 붉다'고 해서 적송(赤松), '주로 내륙지방에서 자란다'고 해서 육송(陸松)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이 소나무를 적송이나 육송으로 부르지는 않았다. 옛 문헌에 나오는 소나무는 송(松)이 아니면 송목(松木)으로 적었고 권 판자는 송판, 소나무 중에서 특히 재질이 좋은 나무는 황장목(黃腸木)이라 하였을 따름이다"(본문 305쪽).